

함께해주셔서 고마워요.

내 경험에서, AI의 쓰임 찾기

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작은 결과물을 만드는 나만의 워크북



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

이 작은 워크북이 여러분의 경험을 발견하고,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. 강의 신청과 관계없이 편하게 꺼내 써주세요. 여기서 얻은 도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.

한국AI작가협회 협회장 김예은

오늘 이 선물로 도움받고 싶은 것 한 가지

AI로 만든 가상 장면의 삽화입니다. 그림 속 인물은 실제 인물의 프로필이 아닙니다.

내 경험에서, AI의 쓰임 찾기

막연히 잘 쓰는 것보다, 오늘 필요한 결과물 하나를 정해봅니다.

AI 계정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.

그림 속 물건처럼, 내 경험의 단서 하나부터 떠올려보세요.



1. 누군가 나에게 자주 묻거나 부탁하는 일은?

예: 처음 온 주민에게 행사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.

2. 그 사람은 어떤 순간에, 무엇 때문에 막힐까?

직접 본 말·행동을 적고, 아직 짐작하는 부분은 [가설]로 표시하세요.

3. 오늘 만들어 볼 결과물 하나는?

예: 처음 온 주민을 위한 행사 안내문 1장 / 자주 묻는 질문 3개

한 문장으로 정리하기

나는 [대상]이 [어려운 상황]에서 [원하는 행동]을 할 수 있도록,
[내 경험·자료]를 바탕으로 [결과물 한 가지]를 만들겠다.
